

찬양전도운동

출애굽기 15:1-6

최정웅 목사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찬송이다. 전체 백성이 찬양대가 되어서 찬양인도자인 모세와 미리암을 따라 찬양한 것이 본문이다. 곳곳에서 악기도 동원되고, 손뼉도 치고, 소리도 높여서 찬양했는데, 이 찬양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의미있고 중요한 찬양이 되었다. 이 찬양이 왜 힘이 있는가? 증거를 보고 체험한 자들의 찬양이었기 때문이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듣는 사람이 힘을 얻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는가? 증인의 찬양이 되면 된다. 전도할 때도 그렇다. 가르쳐준 것, 암송한 것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전도는 쉽지 않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은 쉬운 것이다. 강사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증인이 되는 것은 쉬운 것이다. 우리 모두의 찬양이 전도자의 찬양이 되어서, 가장 힘 있는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란다.

1.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1)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노래 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암5:23에는, 하나님은 악기 소리, 노랫소리를 그치라고 하셨다. 듣기 싫다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로 노래했지만 하나님께는 소음에 불과했던 것이다. 인간의 창조자이시며 찬양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소리에 속지 않으신다. 수준높고 아름다운 찬양을 했던던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 종교화 되었기 때문이다. 중세 천주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정교하게 찬양을 준비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정작 흑암 시대에 빠져 버렸다. 지금도 교회 음악이 많이 발달했다. 그러나 교회 음악을 하는 개개인들은 많이 무너져 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와 성도들이 생각해야 한다. 노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생명력이 없으면, 암6:7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립들이 된다.

(2)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찬양과 간구를 기뻐하신다. 고전 14:15에,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간구하리라”고 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생명 가진 찬양을 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드리는 찬양이 필요하다. 우리 찬양대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많은 찬양대에서 전문인들이 고용되어서 찬양을 하는데, 실제 영접도 안 한 사람이 부르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찬양대에서는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찬양대에 예수 못 만난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데 보니까 우리 반주자가 성경이 없는 것이다. 내 마음이 좀 행해졌다. 교회에 비치된 성경이라도 가지고 와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마음에 담고 있다가 성경을 예쁜 것으로 하나 샀다.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가면서 반주자에게 성경을 선물로 줬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때 마음을 열고 복음을 깨닫고 중요한 요원이 되었다. “무지렁이와 같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 주시고, 평생 해야 할 사역의 방향을 알려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보내 주었다. 지금 생각해도 고마운 분이였다. 우리 찬양대원 가운데 예수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만나야 한다. 그래야 찬양이 된다. 거기에 기능까지 좋으면 더 말할 것이 없지 않다. 잘 기억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한 마디를 노래하더라도 감격해서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2. 찬양전도운동

(1) 영으로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가? 찬양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찬양전도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 부산언제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혼자 찬양을 하니까, 점심시간 12시만 되면 찬양을 혼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음치였다. 음이 안 맞는 것이다. 그런데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기 시작했다. 한 달 쯤 지났는데 음악과를 다니는 청년이 찾아왔다. “언니, 미안해. 언니는 음치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음악 전문인인데 한 번도 찬양하지 않고 비판만 했었어. 나도 같이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팀이 생겼는데, 3개월 동안 했더니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더라는 것이다. 진짜 힘있는 찬양은 증인의 찬양이라고 했다. 증거 있는 자가 증거를 가지고 찬양해야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 속에서 나의 찬양이 나오고, 찬양이 전도와 연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만큼 찬양대가 가장 먼저 응답받기를 축원한다.

(2) 실제 복음 체험한 데서 터져나오는 감사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악령은 떠나가 버린다. 찬양의 동기가 무엇인가? 복음 받은 데서 나오는 감사 아닌가. 이것이 최고 동기가 되어야 한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어야 한다. 받은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서 목소리로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3) 이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훈련에 있다. 나는 안타까운 것이, 찬양대원들이 참 훌륭한 분들인데 훈련을 못 받는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찬양대를 없애야 하려나, 그러면 자분들이 훈련을 좀 받을까, 그런 고민까지 했었다. 용서하시기 바란다. 전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훈련에 앞장서는 찬양대가 되면 너무 좋겠다. 찬양대가 연습을 하니까 성경공부 모임 같은 데 참석을 못 하지만, 그래도 중직자훈련 같은 경우는 오후에 하니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연습하고 시간 바쳤는데 또 하라고요?” 생각해 보라. 영혼이 살아야 내가 헌신도 할 수 있다. 진짜 헌신을 할 수 있다. 다른 팀들은 몰라도, 찬양대는 진짜 훈련에 따라붙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번엔 집중합숙도 있고 집중신학원도 준비하고 있는데, 찬양대가 전부 이 훈련의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되기를 바란다. 집중합숙, 집중신학원을 통해서 교회마다, 나라마다 야단이 났다. 그런데 우리교회는 처음에 조금 하는 듯 하더니 안 해 버린다. 잠들어 버린 것 같다. 나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 교회다.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도의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흑암이 꺾여 버린다.

(4) 예배시간에 찬양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교회 내부를 살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을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분을 한 번은 단 위에 불러다가 소개하면서, ‘이분이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고, 이때 내가 거기에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찬양대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군대다. 찬양대원은 특수부대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라가 큰 위기를 당했다.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그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했다. 이때 흑암이 꺾이면서 승리하게 되었다. 우리 찬양대가 영적 싸움을 하는 만큼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찬양이 살아야 한다. 우리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잘 하고 계신데, 찬양이 느리다면 교회가 죽는다. 제 박자로 찬양을 해야 한다. 4/4박자면 강박으로 시작해서 노래를 힘 있게 불러야 한다. 찬양대도 그렇게 해야 하고, 전체 교회가 찬양을 제대로 해야 한다.

(5) 그리고 현장에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여시고 간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은 찬양대원이기 이전에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다. 그래서 캠프도 찬양대원들이 앞장서서 참여해 보라. 이분들이 가면 캠프도 구역예배도 찬양소리부터 달라질 것 아닌가. 앞장서서 응답 받으시기 바란다. 그 현장의 증거를 가진 전도자들의 찬양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실 것이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전도자의 찬양, 증인의 고백이 들어있는 찬양이 되기를 축원한다.

본문에 나타난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라.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찬양의 내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했다.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했다. 여호와의 통치를 선포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 성령충만이 임하도록 선포해야 한다. 나는 우리 찬양대가 적어도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최고의 찬양대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휘자, 대원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참 잘 받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드린다. 모든 찬양대원들이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응답을 받고 전도자의 찬양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전도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은 헌신예배를 하는 주일입니다. 주여, 저들 위에 은혜를 베푸시며, 고운 목소리를 주시고, 악기 다룰 좋은 기능을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찬양이 전도운동의 선봉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훈련에 참여해서,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게 하셔서, 증인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 가문의 흑암, 교회 주변의 흑암이 꺾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헌신예배에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에게 건강과 산업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